

# 현대 불교

## 창간 2주년 특집

특집 I 직장·직능법회

특집 II 불교의 세계화

### 특별기고

유교의 전통을 지켜온 시골 한학자의 집안에서 자란 나는 어린시절 좁은 뜻에서의 종교 밖에서 살았다. 내가 어려서 살아 온 세계에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신념은 있었지만 절대자에 대한 기도(祈禱)나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명상(冥想)을 위한 시간이나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후자의 세계를 종교적이라 한다면 그러한 세계는 나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었다.

우리집 사람 대칭에서 바라다보일 정도로 가까운 300미터 정도 높이의 고봉산(高峯山) 골짜기 중턱에 집이 있었고, 20리 밖에 떨어진 공서지라는 동네 가의 황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성당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것이 모두 너무나 멀고, 불교나 기독교가 모두 너무나 생소한 세계였다.

사월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날이면 진달래꽃으로 붉게 덮힌 고봉산에 있는 절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불교 신자이건 아니건 주변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봄 하루를 즐기곤 했다. 어린 나에게는 무척 놀고 무척 먼 가기 힘든 곳

기 좋아 한다. 나는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말없이 기도하는 삼들의 경건한 모습을 볼때 나 스스로 호모함을 느낀다. 모스케 지붕에 올라가 내가 한아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랍어로 '알라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회교신자의 우렁찬 목소리는 나의 심금을 울린다. 내가 그동안 위와같은 종교에 대해 피상적이거나 공부를 했기 때문만은 아



박이훈  
(포항공대교수·철학)

근본적으로 불교적이다. 나는 차츰 철학적으로 불교에 매료된다. 불교가 부처라는 하나의 인간의 가르침에 지나지 않고, 그 가르침이 사성제(四聖諦), 고(苦) 즉 삶의 고통, 집(集) 즉 그러한 고통의 원인, 멸(滅) 즉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 도(道) 즉 그 방법으로 요약된다면 언뜻보아 불교는 길은 철학적 혹은 종교적 가르침이라기 보다는 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에 대한 해석과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친 부처는 철학자이기 전에 인류 영혼의 의사였으며, 의사이기 전에 평범한 그러나 자비로운 심성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위와같은 부처의 평범해 보이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철학자도 쉽게 미칠 수 없던 철학적 깊이를 통찰력과 한 없이 따뜻한 인간적 심성에 뿌리박고 있다.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그의 욕망이며, 이같은 욕망은 자아(自我)에 대한 집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자아의 존재를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왜 카르트의 철학적 호소력은 자아의 확실성을 확인해준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아(無我)·무

## 인류영혼의 의사

이기는 했으나 한학자이신 할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가서 그분이 사주시는 눈썹사탕, 엿가락 그리고 썩떡 등을 즐겨 먹던 기억이 난다. 절은 단청으로 울긋불긋하다. 절 집 전체가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다 본 대웅전의 불단 역시 그렇다. 울긋불긋한 색깔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아니 '귀신같다'는 느낌을 준다. 학교에서 단채로 소풍을 갔던 프랑스인들이 살던 20리 밖 성당 안 벽에 그려진 성화(聖畵)들을 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가졌었다. 그런 것들이 종교라는 것과 관계된다면, 그것이 불교이던 기독교이던 상관없이 종교란 '이상스러운 것',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부처 앞에 촛불을 켜놓고 열두더 불공을 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는 행위가 아무리해도 기이하게만 보였다.

아직도 나는 회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나는 엄밀한 뜻에서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았다. 사물을 장식한 단청이나 성당을 장식한 여러가지 십자가 모양이나 역시 울긋불긋한 성화들은 아직도 내 미학적 기호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을 나는 그 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목탁을 치며 크게 불경을 외우는 스님들의 청량한 목소리를 듣

는듯 싶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내 마음을 다잡아 사로잡고 깊숙히 울린다. 불경낭독, 기도의 자, '알라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한결같이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보편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가?

나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불교의 명상, 기독교의 경건성 그리고 회교의 철저성에 끌린다. 나는 절대신과 천당을 전제하는 기독교 및 회교의 교리와 아울러 무아무존(無我無存)과 공극적 '무(無)·공(空)'에 대한 교리에 관한 책을 조금 읽었다. 나는 아직도 서양 종교의 절대신의 존재나 천당,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믿지 않으며, 불교적 천당으로서의 '서방정토'나 '나'의 윤회, 따라서 부처님 상 앞에서의 불공을 믿지 않는다. 서양종교적 기도나 불교적 불공이 기본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이 필연적으로 기복적이라면 나는 그러한 종교를 따를 수 없다. 나는 기독교, 회교신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불교신자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들과의 지적 접촉으로 나는 지적 성장이 가져오는 쾌감과 영적 풍요가 동반하는 실존의 깊이를 경험했다고 여겨진다.

나는 불교도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관은 아무래도 알고보면 기독교나 회교적이기 보다는

존(無存)·공(空)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부처의 가르침은 데카르트적 형이상학, 즉 우리들의 보편적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자아 즉,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물론 어떠한 사물현상도 고정된 것은 없다. 즉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있음'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으로서의 '되어감'이다. 윤회(輪廻)란 불멸하는 '나'의 재생이 아니라 부단히 그리고 영원히 변하는 나의 다양한 양상을 지칭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모든 것들을 고정된 영원불변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상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이름' 즉 '환상' 즉 공(空)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무아·무존·공은 '나' 존재 '유(有)'의 부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본질적 속성을 지칭하는 개념임은 무말할 것 없다. 현대 철학과 같은 모든 현상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영원한 변화·되어감의 우주에서 '나'가 하나의 환상인 이상 '나'의 죽음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삶과 존재일반에 대한 불교적 직관은 철학적으로 옳고 아름답다. 길은 끝까지 아름다운 숲속 길이 자리 잡은 한국의 절로 들어가는 긴 길을 걸어가면서 불교적 공(空)과 만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해도 나는 해방감과 기쁨으로 가득차진다.



### 약사어래 부처님 오시는 날까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의 허동빌딩(70세)은 모든 중생의 건강을 기원하며 유명한 노릇골에 돌탑을 쌓고 있다.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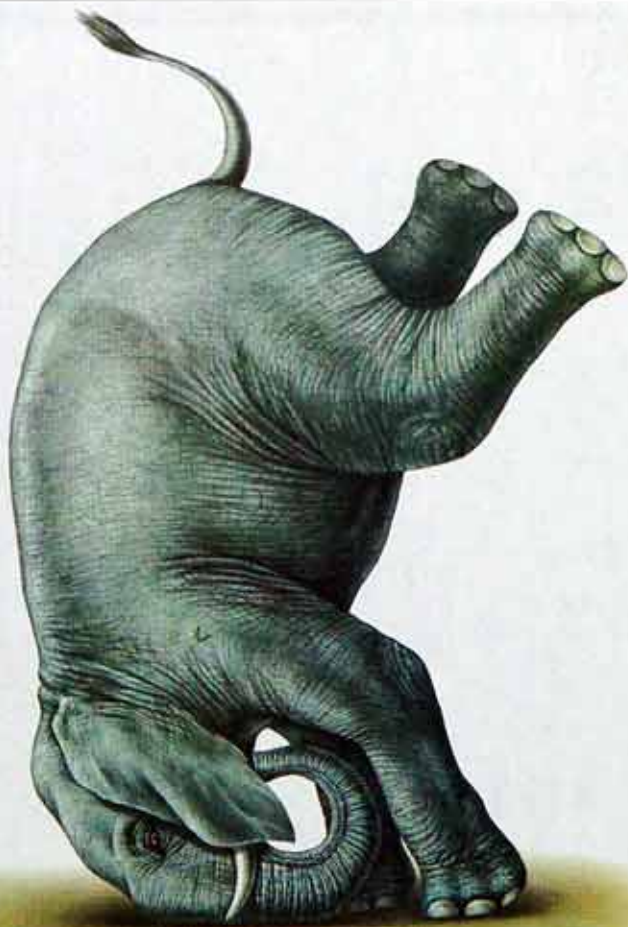
판 마이산 탐사를 연상시키는 허움의 탑쌓기 작업은 4년 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80여기의 크고작은 탑이 완성됐다. 허움은 죽는날까지 노릇골에 탑을 쌓고 인류건강을 기원하는 도량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중생들 병없이 살라고 돌탑 쌓는다네

탑을 세운다네.  
중생들 병없이 살라고  
두진갑 채움물의 무진법문 따 들고  
죽판의 바람과 햇살로 몽학진 돌을 모아  
탑을 쌓는다네.  
중생들 건강의 염원을 쌓는다네.  
저혼자는 일어서지 못하는 돌을 탑으로 세운다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의 유명산 노릇골  
許東發翁은 마이산에 탑을 세운 이감옹의 후신인가  
등등 뒤돌아 본 세월의 無常같은 돌탑 돌쌓기를 모아  
탑을 쌓는다네 중생들 건강의 비원을 쌓는다네.  
이장아장 막내손주 키만한 탑도 쌓고  
강장강장 산마를 총각 장대키보다 큰 탑도 쌓는다네.  
세상 사는데 뭇그리 따지고 싸우는가  
돈 벌어 부자되면 돈부자 아니라 욕심부자 되는 것을  
마음에 병들면 몸 괴롭고 몸 괴로우면 세상이 괴로워  
중생의 보배중에 으뜸이 건강아닌가

許노인의 소망은 건강한 중생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뿐이네.  
도시생활 청상하고 찾아온 엄소리 노릇골에  
사계절이 내뿜 바퀴도복 80기의 돌탑을 세우면서  
許노인은 배웠다네  
마음이 극락이고 마음이 지옥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웠다네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다 고목이 있으면 고목의 발치에다  
돌탑을 쌓으며 許노인은 즐겁다네 즐거워 혼자 웃는다네.  
처음에야 아흔아홉개만 쌓았으면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이 비어 갈 수록 돌탑은 높아가네  
천재를 쌓을거나 만재를 쌓을거나  
노릇골이 마침내 탑술이 되는 날에  
약사어래 부처님이 오셔서 장로약수 단비를 내리시리.  
그날에 중생들은 잔칫상을 차릴테니  
날다란 름두막도 짓는다네.

(임연태 기자)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전선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역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차단기, 전압분배기, 용접기, 철합설비



###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변용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철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석도설비



### 자동화사업부

핵심인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 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제정설비, LPS, PLC 등 제어장치, 물류 SYSTEM, SERV SYSTEM, FA SYSTEM, 스마트 SYSTEM



### 건설사업부

민자의 오차도 허용이 없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리프, 오이스팅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